

인술로 포교하는 '자비손'

가족아카데미 네팔서 환자 1천6백여명 진료

불자약사보리회 소적새마을 주민에 무료투약

각 단체들이 새해들어 의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가족아카데미는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불자보리약사회는 소적새마을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청주 금강의료봉사회와 부산불자간호사회는 3월에 지역노인 의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족아카데미(회장 이근후, 이대 신경정신과 교수)는 2월 1일부터 11일까지 24명의 의료진이 참가 부처는 나라인 네팔 카투만두와 차우라리 보카리 일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

카투만두에서 간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한 가족아카데미는 북쪽으로 40km 지점에 있는 차우라리에서도 환자 1천6백여명을 진료했다. 특히 보카리에 있는 티벳 난민촌을 찾아 난민들에게 비타민 등의 약품을 전달했다.

내년에도 국내에 홍보를 강화, 비타민회원의 성금을 늘려 봉사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네팔정부 9일 상리차호에서 가족아카데미 의료봉사단 초청만찬회를 열었다. 이날 만찬회에는



◇가족아카데미는 1일부터 11일까지 네팔에서 의료봉사를 했다.

상원의장과 보사부장관 등 정부고위인사들이 다수 참석, 한국을 홍보하는 민간외교사절의 역할을 토크했다.

불자보리약사회는 정기적으로 소적새마을을 방문하여 무료투약행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청주 금강의료봉사회(회장 우정순)와 부산불자간호사회(회장 황보선, 부산대 간호학과 교수)도 각각 3월경 부산과 청주에서 지역노인복지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칠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이와함께 청주 금강의료봉사회(회장 우정순)와 부산불자간호사회(회장 황보선, 부산대 간호학과 교수)도 각각 3월경 부산과 청주에서 지역노인복지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칠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계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발전을 통해 제과업계를 포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과기술세미나에는 대한불교제과인회 정관수회장을 비롯한 장명환, 김세종회원이 강사로 나섰다. 불교제과인회는 서울세미나 및 전시회에 이어 초과일이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세미나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0331) 212-8976. 김원우 기자

봉축기념 종교화합 케이크 제작

불교제과인회 전국 순회 세미나 전시

종교화합을 위한 초과일기념 제과기술세미나가 열린다. 대한불교제과인회(회장 정관수)는 4일 서울 서대문구 리치먼드기술원에서 제과기술세미나를 갖는다. 특히 종교화합을 위해 반야심경 무상게 호신불

심이지신상과 기독교의 주기도문 십자가케이크 만들기 시연 및 전시회도 갖을 예정이다. 정관수회장은 "99년 초과일을 맞아 종교화합을 모색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보급하겠다"며 이번 세미나 및 전시회는 제과업

합회는 3월초 현판식을 갖는다. 불기협 10년사 편찬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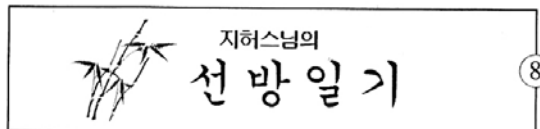
합회는 3월초 현판식을 갖는다.

불기협 10년사 편찬기로



한국불교기초교리(회장 하준성)는 22일 중남부 회의실에서 총회(사진)를 갖고 올해 예산 5천8백51만 원을 확정했다. 불기협은 99년 사업으로 △불기협10년사 편찬 △불교인문체육대회 개최 △기초교리 수회 △기초교리 시상식 등의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끼 스님 세상공부 하면...



〈전 호에 이어〉

옛날의 '올해끼'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현재의 나로서는 보지 못했으니 알 수 없지만 요즘은 '올해끼' 스님들은 대부분 수도도를 먹은 뒤에야 비로소 발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기가 20대가 발심하는 확률이 제일 많으니 연령타이기도 하겠지만,

올해끼 스님들이 바라보는 사회는 절대로 지옥일 수 없다. 관광객들의 표정에서는 이 지러진 것을 볼 수 없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느껴보지 못하고 다만 경건이나 연상의 스님들의 입을 통해서 인생고해나 사바세계나 업보증상이니 하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반, 극락, 피안, 적멸을 동경하고 거기에 미치지(及) 위해 견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 느껴보기 위해서다.

요즘을 승려교육기관은 불교전문강원이 몇몇 분사에 있기 있지만 내적인 불경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강원을 졸업한 스님들이 외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도회지로 침투한다.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내에 불교대학이 있고 마산대학교 이리 원광대학이 있어서 다소 외전을 익힐 수 있는 문화가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승가위주의 대학이 아니고 일반 학생 위주의 대학이고 보니 여기 드나드는 스님들은 수적·물적 열세 때문인지 아니면 신심이 퇴락해서인지 속화의 길을 걷기 십중팔구다. 도시의 무슨 학원이다, 강습소다 하는 곳에서도 올해끼 스님들이 때로는 승복, 때로는 속복을 걸친 채 드나들면서 외전의 열세를 만회하려고 몸부림친다.

도시에 진출하여 면학하는 '올해끼' 스님들의 학자금도 또한 문제다. 은사스님이나 본사의 보조를 받아 기숙사나 등록사찰에서 거주하면서 통학하는 스님들도 있지만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은 영리위주의 사찰 불당에서 '부전살이(불당을 맡아서 받드는 일)'나 해주고 몇 톨 얻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외전이나 도시를 외면하고 올해끼 스님답게 산간에서 청정하게 수도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스님들을 국방부가 그대로 보아 넘겨주지 않는다.

스물 한살만 되면 틀림없이 입대경정이 나온다. 어쩔수 없이 승복을 벗고 군복을 입으면 군대에서는 고문관 취급을 받는다. 좋은 의미에서도 받고 불쌍한 의미에서도 받는다. 그 복잡다단하고 음담패설이 상용어로 되어 있는 사병생활을 삼년만 마치고 다시 절간을 찾아 돌아오는 올해끼 스님들은 군진(軍塵)을 털고 위대한 발심과 함께 선방으로 돌아온다. 몇 할이나 돌아올까.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올해끼 스님들은 속진(俗塵)을 씻고 위대한 발심과 함께 돌아온다. 얼마나 돌아올까. 강원을 마치고 책장을 던지고 선방을 향해

들어오는 올해끼 스님들은 얼마나 될까. 모든 대답은 "극히 소수지요".

불교의 윤회설 때문일까. 경제학의 수요공급의 법칙 때문일까. 공기의 대류작용의 원리 때문일까. 남방 속승불교를 닮아가는 지 알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행해지고 있는 세간과 출세간의 교류현상이다.

우리 상원사 대웅은 '올해끼'의 바로미터를 15세로 잡는다면 3할은 '올해끼'고 7할은 '늦게끼'다. 바로미터를 20세로 잡는다면 7할은 '올해끼'고 3할은 '늦게끼'가 된다. 20대 전후에서 발심하는 확률이 많다는 것이



출가 발심 확률 20대 가장 높아 대학 군대 마치고 소수만 선방 복귀

증명된다.

꼬마 스님들이 오후부터 암숙시간이 되었다. 발단은 결례때문이다.

작은 꼬마스님은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생활에 질서를 유지시킨다. 그러므로 무척 개인적이어서 우직하고 내향성이고 정결하다. 절발을 일찍부터 먹은 명실상부한 '올해끼'의 생활태도다.

반면에 큰 꼬마스님은 이유가 많고 눈치가 비상하다. '적당히'를 요령있게 요리하면서 약육강식에 철저하고 이혜타산이 예리하다. 모든 것에 사시(斜視)적이어서 절발을 4년이나 먹었지만 아직도 보육원출신의 명분에 투철한 편이다.

작은 꼬마스님이 조실스님방 청소 전용으로 사용하는 절례는 언제나 깨끗하고 제자리에 놓여있다. 방을 닦고 깨끗이 빨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꼬마스님은 자기 책임인 주지실의 전용절례가 없다. 주지스님은 출타가 잦아 가끔 청소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방 지방 절례를 갖다 쓰고서는 제자리에 두지 않고 기본대로 팽개쳐 버린다. 여러차례 주의를 받고도 고치지 못한 습성이다. 오늘날 절례 때문에 입승스님으로 부터 호된 책망을 들었다. 작은 꼬마스님의 고자질로 간주했다.

작은 꼬마스님방 전용 절례를 쓰고 제자리에 갖다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승스님의 혼계에서 풀려나온 큰 꼬마스님의 눈초리가 작은 꼬마스님의 눈초리와 마주쳤다. 이때부터 암숙시간을 알리는 저기압이 무섭게 깔리기 시작했다.

오후의 뒷방에서다. 저기압은 끝내 먹장구름을 불러온다. 먹장구름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다. 드디어 번개가 치며 천둥이 울린다. 그리곤 비가 쏟아지기 마련이다.

뒷방에서 이제 막 방선(放禪)한 스님들이 편한 자세로 각자가 아랫도리를 달래면서 잡담이 한창이다. 큰 꼬마스님이 복수의 집념



이 가득한 표정으로 누워있는데 작은 꼬마스님이 선반에 있는 자기 바탕을 내리다가 큰 꼬마스님의 발을 건드렸다. 큰 꼬마스님에게는 요령이요, 작은 꼬마스님에게는 불행이었다. 시비가 시작되고 '늦게끼' '올해끼'로 수작하다가 욕설을 주고 받고 마주 앉아 서로 꼬집고 발길질이 오가더니 드디어 큰 꼬마스님의 위력이 작은 꼬마스님의 면상에 가해지자 작은 꼬마스님이 자폭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박치기로 응수했다. 큰 꼬마스님은 코에서 선지피가 흘러 옷과 방바닥에 갖가지 수를 놓았다. 대중들에게 의해 열전은 곧 제지되고 꼬마스님들은 입승스님 앞에 꿇어앉아 혼화조의 경책을 들은 다음에 불전의 백백참회로 들어갔다.

9시에 취침을 알리는 인경소리가 끝나자 탁자 밑 꼬마스님들의 잠자리에선 오손도손한 얘기소리가 들렸다. 그들 사이는 틀림없이 여름 날씨 같은 것이어서 날이 바뀌기도 전에 벌써 다정다감(多情之間)이 되어 있었다.

덕승총림 수덕사 부설 한국불교선학연구원 · 무불선원 회원 모집

본원은 직관적 깨우침을 이끄는 참선과 지성적 사유로서 선의 이해를 돕는 선학강좌를 병행하여 선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도모하는 도심속 연구원이자 수행 도량입니다. 2월 4일부터 실시한 예비강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바, 3월 본 강좌 개설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회원회를 모집합니다.

제1기 무불선원 회원 모집 안내

- ◆ 모집대상 : 참선수행과 선학을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분
- ◆ 모집기간 : 1999. 3. 4.까지 (사정이 있는 분 중간 신청 가능)
- ◆ 강 의 : 매주 수, 목, 금요일 오후 2~4시, 저녁 7~9시
매주 목, 금요일 요가강좌 오후 4~6시.
- ◆ 강의내용 및 강사 : 시간표 참조
- ◆ 구비서류 : 회원신청서 1통 / 증명사진 2매
- ◆ 문의 및 접수 : 한국불교 선학연구원 · 무불선원
전화 : 02)541-0002-3, 팩스 : 02)541-0004

성지순례 및 철야 정진수행

- 본 선원은 회원 및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시고 경허·만공선사의 범향이 그윽한 덕승산 수덕사 등 성지순례 및 철야 정진수행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일요일 (3월~3월 27일 오후 3시 덕승산 수덕사 순례)
- ◆ 장 소 : 덕승산 수덕사 및 경허·만공선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 ◆ 준비물 : 세면도구/필기구/간편복장

강의시간표

3월					
주	시간	날짜	수	일차	금
1	2~4				선의 세계/법장스님
	7~9			3/4	특강/법장스님
2	2~4	불교기초교리			경허선사와 근세불교/성타스님
	7~9	3/10 불교기초교리	3/11		선어록①/월운 큰스님
3	2~4	불교기초교리			참선실수
	7~9	3/17 불교기초교리	3/18		한국근대불교사의 이해/평병헌
4	2~4	불교기초교리			선어록②/김무득
	7~9	3/24 불교기초교리	3/25		만공선사의생애와사상/거부스님

4월						
주	날짜	수	날짜	목	금	
1	3/29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4/1	선과 지연/선과경제	4/2	참선실수/선화
2	4/7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4/8	경허선사와 근세불교/선어록②	4/9	선문학①/선학입문①
3	4/14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4/15	참선실수/고승법어	4/16	정보화 시대의 선의 효용성/참선실수
4	4/21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4/22	선어록②/만공선사의 생애와사상	4/23	선문학②/선학입문②
5	4/28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4/29	선어록③/참선실수	4/30	참선실수/선학입문③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
전화 : 02)541-0002~3, 팩스 02)541-0004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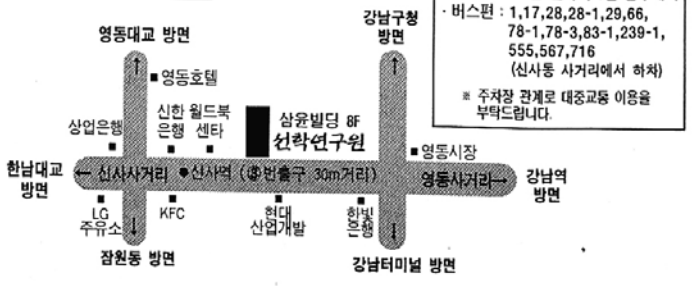
주	날짜	수	날짜	목	날짜	금
1	5/5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5/6	선의 인생관/참선실수	5/7	참선실수/선의 불성론
2	5/12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5/13	경허선사와 근세불교/선어록③	5/14	선문학③/선학입문③
3	5/19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5/20	참선실수/선과 정신의학	5/21	선의 범용성과 시간법/고승법어
4	5/26	불교기초교리(오후·저녁)	5/27	선어록④/민공선사의생애와사상	5/28	선문학④/법장스님특강

▶강사진 (4월~5월) : 유필화(상대교수),이동환(충북대학교수),정기용(경철대학교수), 김경현(한외사),안승준(오기)및 기타 강사진 3월과 동일

고승법어(큰스님 초청법회) 일정

- ◆ 3월 19일 - 해암큰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 ◆ 4월 15일 - 서암큰스님 (전 조계종 종장)
- ◆ 5월 21일 - 성수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역도 및 교통편



지하철 : 3호선 신사역 3번 출구에서
버스편 : 1,17,28,28-1,29,66,
78-1,78-3,83-1,239-1,
555,567,716
(신사동 사거리에서 하차)
◆ 주저장 관례로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